

제975호

(1994.8.2 등록번호 다-3802호)

2013년 11월 17일(주일)

온누리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던진故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

The Onnuri Weekly

http://news.onnuri.or.kr

• 발행인: 이재훈 • 편집국장: 장선철 • 부장: 김남원 • 기자: 정지은, 오은지, 조유진, 조은실 / 140-240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71-106 / 신문사 3215-3199 / 570-7611 서빙고 793-9686 양재 573-9686

받은 사랑 이웃과 나누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순, 공동체, 대청, 차세대 쌀, 과일 헌물
복지재단 산하시설, 지역 주민에 전달

오늘은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다.

국내 10개 캠퍼스 순과 공동체, 차세대, 대학 청년부 등에서 쌀과 과일 등의 감사헌물을 봉헌한다.

온누리교회는 매년 받은 사랑에서 그치지 않고 순과 공동체를 중

심으로 감사헌물을 모아 온누리복지재단 산하시설, 교회 인근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매월 마지막 주일을 긍휼사역주일로 정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추수감사주일은 매년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는 절기다. 부활절, 성탄절과 함께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신앙박해를 받던 영국 청교도들이 1904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이주한 이듬해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첫 수확을 하고 연 3일 동안의 축제가 유례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주일은 1904년 9월 조선예수교장로회 제4차 공의회(서울 동천교회)에서 서경조 장로가 한반도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수많은 동포들이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를 정하자는 제의가 유래가 되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더 멋진 세상,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 긴급구호

지난 11월 9일, 사상 최악의 슈퍼태풍 ‘하이옌’이 필리핀 중부를 강타하면서 1만여명의 사망자와 960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며 대규모 인명피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 (Better World)은 지진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 중 하나인 보홀(Bahol) 섬의 칸다비드(Candavid) 마을에 비

상식량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파괴된 주택 106채를 신축할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3일 뒤, ‘하이옌’이 필리핀 중부를 강타해 도로는 잿더미로 변하고, 전기, 물 등 기본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이곳에 태풍의 피해 규모와 범위가 점점 더 크게 확대되면서 ‘더멋진세상’이 긴급구호팀 파견을 검토 중

이며,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지에서 보고되는 영상 등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도로 표지판을 볼 수 없게 되었고, 바람에 날려 갈 정도로 태풍의 강도가 어느 때보다 심하다.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이곳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온누리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10면으로 이어짐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풍성한 열매 맺힌 ‘러브소나타 군마’

지난 13일~14일, 기독교의 중심지라 불렸던. 그러나 지금은 영적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마 땅에 성령의 단비가 촉촉이 적셨다.

군마 러브소나타에는 일본 참가자 1,750명, 한국 참가자 216명, 한일 스태프 190명 등 총 2,156명이 참석했다. 이번 러브소나타에서는 254명이 러브소나타 집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304명이 확실한 크리스천으로 살

겠다고 재결심 했으며, 33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 11명이 성경공부에 관심을 보이는 등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거두었다.

또한 군마현의 63개의 협력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온누리장로회합창단, CGNTV실행위원, CEO포럼, 복지재단 등이 참석해 러브소나타가 더욱 빛났다. ▶5-9면으로 이어짐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11월 30일, 2013년 임직식

서빙고 본당 오후 7시30분

2013 임직식이 오는 11월30일 오후 7시30분 서빙고 본당에서 진행된다. 이날 임직대상자들은 검정색 또는 짙은 색 바지정장을 입고 참석해야 한다. 리

허설은 오후 5시에 본당에서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임직감사헌금을 봉헌하지 않고, 식사비용 등으로 사용되는 회비 2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계좌: 하나은행 573-910003-90805 (온누리교회 임직자스쿨)

한식당 가격 인상

온누리교회 한식당 단체급식 판매 가격이 오는 12월 2일(월)부터 3천원으로 인상된다. 선교재단측은 식재료비 상승 등 운영환경 변화로 부득이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온누리교회 찬송가 앨범 발매

온누리교회 예배사역팀인 ‘온누리위’ 십에서 온누리교회 찬송가앨범을 발매한다. ‘찬송가의 재발견’을 주제로 만든 앨범 〈온누리위십 Hymns〉는 젊은 세대를 가운데 찬송가가 잊혀져가는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누구나 공감하고 함

께 따라 부를 수 있는 찬송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앨범은 예배본부장으로 사역하는 김영진 목사가 프로듀싱을 담당했으며 온누리교회 예배인도 목회자들과 찬양팀, 밴드가 참여했다. 수록곡은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을 포함 총 11곡이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다윗과 밋세바

예배, 말씀, 순종, 사랑의 자리를 지키면
영적 위험으로부터 쓰러지지 않습니다.

삼하 11:1~13

오늘 본문은 매우 어두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타락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최초의 타락에 버금갈 정도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성공담보다 타락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동시에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육신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0장까지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훌륭한 신앙과 인격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1장 이후부터는 다윗이 저지른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고 징계하시는지 보여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밋세바를 만났을 때

다윗과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골리앗과 밋세바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잔인하고 포악한 남자로, 밋세바는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다윗을 시험대위에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와 밋세바를 만났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젊고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밋세바를 만났을 때는 나이 오십이 넘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목동 생활을 했고, 미래가 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밋세바를 만났을 때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상 중심에서 있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기도와 믿음의 사람이었고, 밋세바를 만났을 때는 기도와 믿음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은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시기였습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는 영혼이 맑고 정결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풍요로워졌을 때 그의 영혼은 부정했고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주변의 거의 모든 국가를 정복한 왕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정복은 정복하지 못했

습니다. 그가 정치, 군사, 경제적 승리를 거두고 있을 때 영적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없는 '다윗'

오래 전 <한국신문>에서 '성공하는 지도자들이 왜 타락하는가?'라는 사설에 게재된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밋세바 신드롬'입니다. 논문의 주요내용은 사람들은 성공에 다다랐을 때 포커스를 잃어버리고 성공 너머에 있는 실패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정보와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자만에 빠져 밋세바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부하들만 전쟁에 내보내도 될 만큼 국력이 신장된 상황에서 밋세바가 만났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봄에 암몬과 전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봄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윗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죄로 얼룩진 승리였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다윗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습니 다. 왕은 전쟁이 일어나면 최전선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헌신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 있지 않고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의 자만심, 교만, 안일함, 태만함, 나태함 때문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 의무를 게을리 하는 때를 사탄이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도 다윗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어느 날 저녁에 침대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은 다윗이 안일함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하들은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왕궁에 있는 것도 합당하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날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 여인은 엘리압의 딸이고 헷사람 우리야의 아내 밋세바였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밋세바의 남편은 '우리야'입니다. '여호와와 밋'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개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30명의 용사에 포함되는 충신이었습니다. 또 밋세바의 할아버지는 다윗의 정치 고문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다윗이 밋세바에 대해 알아보았을 때 그녀가 자신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었습니다. 만약 밋세바가 누군 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멈췄다면 다윗은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밋세바를 자신의 궁정으로 불렀습니다.

다윗이 우연히 밋세바를 본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이후 행동은 매우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고, 또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다윗은 밋세바와의 만남을 사랑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로맨스라고 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노망으로 보셨습니다. 다윗은 이 만남을 운명이라고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멸망의 만남으로 보셨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사람을 보내 더 큰 유혹을 만들었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의 죄가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죄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렌 레드파드 목사님은 이 사건을 다윗이 20년 동안 죄라고 여기지 않은 것들이 쌓여 일어난 문제들의 절정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클라이맥스라는 것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다윗의 행적을 돌이켜 보면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순간적인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순간에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작은 것으

로 시작해서 점점 커지고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5장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다고 했습니다. 잉태한다는 것은 쌍방 간에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심이 유혹과 하나가 되어서 죄를 낳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더라도 욕심이 반응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고,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유혹이 없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욕심과 외부의 유혹이 하나 되면 죄를 잉태하게 됩니다.

다윗의 죄는 지난 세월 동안 잉태되었습니다. 그 죄가 자라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자라납니다. 다윗이 왜 밋세바를 취했겠습니까. 다윗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자기 마음대로 여인들을 취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문제의식 없이 반복되던 일

"왕은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라.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왕은 또한 은과 금을 많이 모아 두지 말라"(신 17:17).

다윗은 은과 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예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명령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으로 직위 하기 전에 세 명의 아내를 두었고 왕이 된 이후에는 다섯 명의 아내를 더 두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은 고대 왕들의 행동으로 볼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세상의 왕과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기보다 세상의 문화수준, 세상의 윤리기준에 부합한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삶을 20여 년 동안 산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반복되었던 일입니다.

다윗은 밋세바 이전에도 많은 여인들을 데려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윗은 아무런 죄의식이 없을 정도로 영적감각이 둔해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양심도 어느 영역은 민감하게 살아있지만 어느 영역은 둔감해진 부분이 있을 수 있

습니다. 한 영역만 살아있다고 해서 양심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는 다윗보다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 명의 아내를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명의 아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 취하고 집에 돌려보낼 때까지 당황하거나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당황합니다. 그때부터 사실을 은폐하기 하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

첫 번째 은폐시도는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냈습니다. 전쟁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아를 불러내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밧세바를 취해 생긴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위장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우리아는 충신이었습니다. 다윗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언약제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있고 내 상관이신 요압과 내 주의 군사들은 들만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혼자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함께 누울 수 있겠습니까? 왕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데 저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11절).

우리아의 충성과 다윗의 간교한 음모가 대조됩니다. 우리아가 충성스런 태도를 보였을 때 다윗은 뉘우치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아의 충성스러움을 통해서 다윗을 일깨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깨우치지 못하고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은폐시도는 우리아를 불러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취했던 다윗이 술에 의지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아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 있는 병사들과 함께 잔다고 했습니다. 술 취한 우리아가 다윗보다 경건합니다.

세 번째 은폐시도는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다윗의 간음죄가 살인죄로 확대되어 갑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가 앞에서 싸우고 있을 때 남은 군사를 철수 시키라는 내용이었습니

다. 다윗의 충성스런 신하 요압은 이 편지를 받자마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간파합니다. 보지 않고도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안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요구대로 해줍니다. 다윗의 요구를 들어주면 엄청난 정치적 입지를 다지게 되고 다윗의 약점을 알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압은 충신이 아니라 맹신입니다. 진정한 충신은 지도자가 잘못된 일을 행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할 줄 아는 것이 충신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죄 끊어내야

다윗이 우리아만 죽인 것이 아닙니다. 무고한 병사들도 함께 죽였습니다. 우리아만 죽으면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으니까 주변에 있던 군사들도 한꺼번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면서까지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을까요. 당시 왕의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감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를 끊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랍니다. 더 큰 죄를 생산합니다. 우리아가 죽은 후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까지 1년 동안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그때가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절대 문제가 해결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네게 주었고 네 주인의 아내들도 네팔에 안겨 주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도 네게 주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모자랐다면 내가 더 많이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여호와와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느냐? 네가 헛 사람 우리아를 칼로 찌러뜨리고 그 아내를 네 것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했다. 그러니 그 칼이 네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네가 나를 임신여기고 헛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네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겠다. 내가 바로 네 눈 앞에서 네 아내들을 데려다가 네 이웃에게 줄 것이니 그가 밝은 대낮에 네 아내들을 육보일 것이다. 너는 아무도 모르게 그 짓을 했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삼하 12:7-11).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심판하셨고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대가가 면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과를 맛보게 하심으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하십니다.

날마다 깨어있으라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그의 가정과 나라에 임했습니다.

그의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고 그에 대한 복수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과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깨어있지 않을 때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죄는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순종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를 지키십시오. 영적 위험으로부터 쓰러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고백하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마음을 새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정리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일러스트 yje



위치에서 여인을 취한 것은 큰 분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범죄가운데서도 율법을 심각하게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간음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다윗이 은폐하려고 했던 이유는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십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모두를 범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속입니다. 회개하면 될 일을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피하면 된다고 유혹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더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나단을 보내서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나단은 비유를 들어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자 다윗이 흥분합니다. 나단이 말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자입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 지적을 받았을 때 즉시 회개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남아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다윗은 부인하지 않았고, 더 이상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의 지적에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 주었다. 내가 네 주인의 집을

“복음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대학청년 NMC, 대학부 독립
‘캠퍼스 복음화 위해 힘쓸 것’ 결단



2014년을 이끌어 갈 대학 NMC 군단이 지난 11월 9일 양재 드림홀에 모여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1월 9일(토) 2014년 대학청년 부 9개 공동체를 위해 각각 헌신하기로 결단한 NMC가 양재 드림홀에 모여 대학청년 비전 및 각오 등을 나눴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6개의 청년부와 3개의 대학부로 구성된 대학청년부가 2014년 새로운 모습으로 각 각 지역에 임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기존처럼 대학청년부가 함께 사

역에 임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대학부는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독립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전현규 목사(하브 대학부)가 대표로 “수도권 내에는 150여 개의 캠퍼스가 있으며, 100만 명의 대학생이 있다. 그중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3%미만이다. 앞으로 대학부가 직접 나서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힘찬 포부를 밝혔다. 이어 감동적인 전도 스토리를 담은 영상이 공개되었다.

이날 (오전 1:21~24)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이상준 목사(대청연합본부)는 “2014년을 준비하면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다지며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길 바란다. 부흥은 천지창조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복음의 열정을 쏟아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CCF세미나, 칩 잉그램 목사 초청강연

가을 시즌 동안 이어지고 있는 크리스천CEO포럼 세미나에 이번에는 칩 잉그램 목사가 강사로 나섰다. 미국 새너제이 벤처크리스천교회(Venture Christian Church) 담임목사

이자 국제적 제자지역단체인 ‘리빙은더에지’ 대표인 칩 잉그램 목사는 지난 9일(토) 양재 온누리 화평홀에서 ‘영적 단순성’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더멋진세상, 몽골환우 통역 자원봉사자 모집

지난 11월 14일(목),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이 초청한 몽골 현지인 나랑토야(49, 여) 성도가 황체아에 몸을 의지한 채 인천 공항에 입국했다.

나랑토야는 2년 전 현지 CCC 간사로 봉사하던 남편과 함께 전도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 사고로 동행한 간사 3명이 사망하고, 그녀와 남편, 자녀들 역시 부상을 당했다. 그 당시 운전을 했던 남편은 과실치사로 3년 6개월의 형이

선고되어 현재 수감 중에 있다.

나랑토야성도는 분당 순병원으로 옮겨져 왼쪽 다리 금속고정술 및 골 이식 수술을 받게 되고, 2차 치료를 마칠 때까지 약 2개월 정도 한국에 머물 예정이다. 더멋진세상본부는 “치료기간 동안 몽골어가 가능한 자원봉사자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오희종 집사(010-2244-1500), 더멋진세상 02-2271-2246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뜨거웠던 블랙가스펠 콘서트”...

지난 11월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는 ‘블랙가스펠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이날 콘서트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영화<블랙가스펠>미공개 영상 상영 및 출연진들의 멋진 공연으

로 꾸며졌다. <블랙가스펠>은 배우 양동근, 정준, 김유미, CCM 블랙가스펠 그룹 헤리티지의 리더들이 블랙가스펠 배우고자 직접 뉴욕 할렘으로 찾아나서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지난 14일 개봉했다. / 조유진 기자

성령님과 함께한 아름다운 시간!

제 52회 성령수련회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되었던 ‘52회 성령수련회’가 지난 11월 9-10일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다윗동산에 열렸다. 이번 수련회에는 참가자, 스태프 등 80

여 명이 참석해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했다. 수련회의 주제 강의를 진행한 이해영 목사는 >약속을 기다리다 >오순절을 준비하다 >오순절을 맞이하다 >영적전쟁 끝까지 기다린 사람 >평안과 기쁨 >환란을 껴안은 용기 등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번 성령수련회에 참석한 김종순 집사(대전 캠퍼스)는 “이달 말 권사임직을 앞두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면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꽃을 피우는 인생으로 살아갈 새 용기를 얻었다”고 고백했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류모세 선교사의 열린다 성경

세상죄를 지고가는 어린 양과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티슈레일월(국제 달력으로는 10월경) 10일째 되는 날이다. 1년 주기로 돌아가는 7개의 절기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절기가 ‘대속죄일’이다. 다른 절기와 달리 대속죄일 희생제사는 제사장 500명의 도움을 받아 대제사장이 직접 주관한다.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의 안식일’로 불리며 가장 거룩한 날로 기념한다.

대속죄일은 종교적인 유대인과 세속적인 유대인의 구분 없이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한 안식일 모드에 들어간다. 거리에는 응급 환자를 실어 나르는 앰بول런스 외에는 모든 차량 운행이 철저히 금지된다. 그래서 이날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끌고 나와 모든 도로를 점유하는 진풍경이 연출된다. 유교를 믿지 않는 한국 사람들도 추석이나 설날이면 차례를 지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는 세속적인 유대인들도 회당에 나가 회개 기도를 드리고 24시간 금식한다.

성전 시대에 대속죄일 행사 중 가장 하이라이트는 두 마리의 염소를 데려와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는 행사였다. 여호와를 위하여 선택된 염소는 반제단에서 도살된 후 그 피를 서쪽 끝에 있는 지성소에 뿌렸다. 반면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는 독특한 행사가 치러졌다. 대제사장은 두 손을 아사셀 염소 위에 안수하고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모두자백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죄가 도살되어 죽을

여호와와의 염소가 아닌 광야에 놓일 아사셀 염소 위에서 자백된다는 사실이다.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아사셀 염소는 성전에서 나와 동쪽으로 향하는데 유대 광야 끝에 있는 몬타르 산에 이르면 가파른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렸다. 결국 동쪽으로 가 낭떠러지에 떨어진 아사셀 염소와 서쪽으로 가 지성소에 그 피가 뿌려진 여호와와의 염소, 여기에서 나온 말씀이 다음의 시편 말씀이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시 103:12).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을 향해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와 관련된 표현으로 이렇게 외쳤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확히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어린 염소’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하지만 당시에는 희생제물로 바쳐지던 황소, 수양, 염소 등을 총칭해서 ‘어린 양’으로 표현했으므로 세례 요한의 선언은 정확했던 것이다.

/ 류모세 선교사

(열린다 성경 아카데미 대표)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

이스라엘-터키-그리스 신규성경 투어: 1월26일-2월8일
이집트-이스라엘 구약성경 투어: 2월10일-2월19일
문의: 김주희 간사(010-4902-1022)

만남의 잔치

날짜: 11월 24일(주일) / 장소: 서빙고 시온홀(B2), 양재 드림홀(지하2층)
대상: 9월 7일 ~ 11월 9일까지 등록한 분(서빙고)
10월 1일~11월 9일까지 등록한 분(양재)

강서 김윤복 박해영 이수범 최주미	노원 윤동희	오창민 이동경 이병선 이은정 전혜경 최문실	이명숙 차제이미 최경남 최동욱 홍수현	서한진 이상현 이주현 이현정 정경진 조연두 조지은 최승주 최종태 허유리 황선택	최금욱 최광수	이봉이 정자원
강촌 임병수	동대문중앙 소옥임 송경숙 염미라 이재현	성북 권성규 김정필 김영호 유영주 홍지현	이수 김성환	이준 김대인 김은예 송영자	강남B 김명숙 김택우 이진희 정은희 정소현	서초C 고경 정승연 박경환 이석환 이현정 전수진 조한빛 황선원
고양은평 곽노현 김병기 김은하 박종훈 양화정 이세라 정수현 조미영 홍도연	마포 김은영 이규리 이규배 이승연 이종필 이효림 전혜민 정윤구 최민숙	양천 김지애 박영빈 양연정	일산 김기훈 김정은 박진영 정미희 좌모세 최경선	한강 신부식 오가영	강남C 구정웅 신영미 윤호일 이지영 전조룡 전홍인 허서희	송파 오수정
관악금천 권병욱 김순남 김승진 김연각 윤애선 이승열	북부리 유인철	영등포구로 박영준 박유미 안복순	중종로 김동성 전성심 정선희	S브릿지 김정은 김지영 박근여 박소연 박승선 박지영 방정현 배선영 임영훈 조지영	분당A 서현석 정재호 정준표 최승기 황혜선	안양평촌 김현주 박성혜
광명 강은영 차주엽	성동광진 강길환 김영 김희정 송은혜	용산 강영태 김보경 김숙현 김재수 마미영 박종석 박혜숙 방경선	특별한초대 고요한 김효선 레이몬드- 제이 임 문영화 문현준	강남A 강미희 김용균 오말순	분당B 김민아 조준영	양재 구원열 김소중 김은경 송승용 안순자 최문국 황영식
김포 박재형					서초A 김형돈 백남선 강정인	

희망의 등불, 군마 땅을 밝히다



선교의 시작 러브소나타, 일본전역에 복음의 바람 일으키소서!

일본의 배꼽이라고 불리는 ‘군마’. 일본 중심부에 위치한 군마 땅에 희망이 빛이 비추었다. 방사능 피폭 위험과 영적 침체라는 절망에서 벗어나 참된 희망의 등불이 밝혀졌다.

13일~14일, 군마 베이시아 문화홀에서 열린 러브소나타는 일본교회의 연합과 군마 선교의 시작을 알렸다. 군마현의 63개 교회가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로 하나 되었고, 1,700여 명의 일본인 참석자 가운데 254명이 러브소나타 집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44명이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고 고백했다. 또한 304명이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기로 재결심하는 귀한 열매가 맺혔다.

하나님의 평화 흘러넘친 러브소나타

이틀 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다.

예수님이 주신 되시는 교회, 아름다운 가정, 복음과 창조의 메시지로 함께 비전을 나누는 ‘교회부흥세미나’, 찬양과 기도로 물든 ‘가스펠 나이트’, 한일간의 연합을 다진 ‘CEO포럼’, 일본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긴 문화전도집회 ‘러브소나타’.

아라카와 마사오 실행위원장은 “한국에서 많은 봉사자들이 희생을 치르며 군마 땅까지 찾아와 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기

회에 우리가 하나 되고, 그 안에 진정한 평화가 넘치길 바라며, 군마의 변화가 일본 전역에 복음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을 믿는다”라고 전했고, 이재훈 목사는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고통스런 과거는 은혜로 불완전한 미래는 희망으로 변할 것이다”라며 함께 미래의 희망을 그려갔다.

사랑의 노래, 사랑의 고백

러브소나타 일본 참석자들의 고백으로 러브소나타가 더욱 아름답게 물들었다.

사촌이 전도해서 오게 됐다는 이노우에는 “집회가 너무 아름다웠고, 목사님 말씀처럼 후쿠시마 방사능 지역의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다”라고 다짐했고, 교회 처음 왔다는 유키야마 미코는 “니지마 학교의 아름다운 핸드벨 연주에 감동받았고, 예수님을 전혀 몰랐는데 어떤 분인지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며 믿음의 마음 문을 열었다. 친구를 전도해서 데려왔다는 이나후쿠 다이시는 “한국 사람이 이렇게 일본사람을 사랑하는지 처음 알게 되었고 너무 인상적이었다. 러브소나타를 통해 확실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라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세상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 고통이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절망적이고 포기할만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들은 희망을 봅니다. 진정한 희망은 절망 속에서 시작됩니다.

절망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곳 군마 현에도 희망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호시노 도미히로 선생님입니다. 그분은 중학교 체육교사로 일하다가 사고로 얼굴을 빼고 온몸이 마비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절망이 그분을 덮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절망적인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후로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며 수많은 일본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희망을 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어하는 절망, 슬픔, 불행 속에서 사랑과 진실,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도미히로 선생님이 불행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 진실을 발견한 비결을 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적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세진이가 절망 속에서 희망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영원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은혜로, 미래가 희망으로

세진이나 도미히로 선생은 절망하는 과거를 넘어 희망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과거가 주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불행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기억을 어떻게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할지는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과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믿음을 더하면 과거에 발견하지 못했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믿음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불행한 과거 속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런 과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속에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도 은혜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불행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왜 불행해하며 사는 것일까요?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을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믿음을 더하면 그것은 ‘희망’이 됩니다. 미래+믿

음은 희망입니다. 하버드대학의 엘렌 랭어(Langer)라는 유명한 학자가 1979년에 신기한 실험을 했습니다. 70~80세의 어르신들을 시골의 한 집에 모았습니다. 그 집에는 20년 전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은 20년 전의 나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의 시계를 20년 전으로 고정시키는 실험을 한 것입니다. 단 일주일을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분이 더 건강해지고 혼자서는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동일한 실험을 했고 30년 전으로 마음의 시계를 돌리는 실험을 했습니다. 87세의 사람에게 50대라고 이름붙이고, 30년 전의 사진과 뉴스를 보게 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을 먹거나 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실험 집에 들어올 때는 걸을 때 혼자 감지 못하고 계단을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험 결과 의사들이 어르신들의 몸을 검진해보니 모두가 다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시계를 20년, 30년 전으로 돌렸을 때 육체가 더 건강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실험을 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마음의 시계를 미래로 돌리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았습니다. 과연 마음의 시계를 ‘영원’이라는 시계에 초점을 맞추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

“예수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고통스런 과거는 은혜로, 불안한 미래는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희망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는다면, 다 해도 그렇게 생각해보십시오. 진짜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죽음을 넘어 영원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놀라운 능력과 결과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믿음을 ‘희망’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희망은 우리의 마음의 시계를 영원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롬 8:24-25).”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희망입니다.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no pain no gain)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것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고통을 참을 수 없다고 말입니

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로운 분이 불의한 자에 의해 죽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끝난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들의 모든 절망을 해결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와 절망을 가져간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최고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일을 예언하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이 자신 죽음의 이후에 일을 예언할 수 있었습니까?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에게 죽음 이후에 대해 말해달라고 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일도 모르는데 죽음 이후를 어찌 아느냐”고 했습니다. 불교의 부처님도 죽음 이후의 세계는 무(無)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다. 희망이란 아무것도 없는데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희망되신 예수님

사람은 희망을 어디서 찾습니까? 돈, 건강, 사회적 지위 등에서 찾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희망을 준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희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분이 세상의 희망입니까? 모든 사람을 절망하게 하는 죽음을 이

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뒤 다시 살아날 것이며 너희를 위한 영원한 처소를 예비했다”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내가 죽음 가운데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함께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역사상 죽음 가운데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분은 오직 그리스도 뿐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사실을 받아드리지는 않아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받아드리고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의 삶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바로 죽지는 않지만 서서히 죽게 됩니다.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수 없다면 절망에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면 우리의 고통스러운 과거도 은혜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한 미래는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들은 인생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무엇이 일어날까 불안해하는 것이 아닌, 날마다 희망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시계를 영원에 고정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 재앙이 와도 그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그 희망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안과 절망이 희망과 은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요, 선물입니다. 아무런 값없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선물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 정리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이재훈 목사

Love Sonata

이틀간의 축복의 현장

일본 군마 땅에 사랑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교회 리더십을 초청해 열린 '교회부흥세미나', 러브소나타의 전조를 알린 '가스펠 나이트', 한일 사랑과 우정을 다진 'CEO포럼', 문화전도집회로 하나님의 사랑 전한 '러브소나타' 등 13~14일 이틀 동안 열린 러브소나타 축복의 현장을 담았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13일(수)

1 주님께 영광 '가스펠 나이트'

군마 찬양팀과 니지마 재단의 단기대학 성가대의 찬양,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연주는 참석자들의 영혼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가스펠 나이트 마지막에는 러브소나타와 일본 교회와 복음화를 위해 일본 성도들이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다.

2 성경적인 교회로 건강하게

일본 교회 리더십 99명이 참석해 열심히 메모하며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비전을 나눴다. 교회부흥세미나에는 '교회론과 목회철학'(박종길 목사)과 '가정의 회복과 자녀교육'(김성묵 장로), '창조와 복음'(이은일 장로)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졌다.



14일(목)

교제와 연합의 장 'CEO포럼'

일본과 한국 사회 각 분야의 리더십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제와 연합의 장을 이뤘다. 아라카와 마사오 실행위원장이 참석자들에게 환영인사를 건넸고, 이재훈 목사는 "한일 간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아름다운 나눔을 이어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질 것이다"라며 CEO포럼의 사명을 밝혔다.



사랑의 빛으로 물든 '러브소나타'

군마현의 크리스천 재단인 니지마 학교 학생들의 아름다운 핸드벨 연주가 집회장을 가득 메웠다.

러브소나타 집회의 피날레를 장식하며 이재훈 목사와 아라카와 마사오 실행위원장이 손을 맞잡았다.

로봇다리 세진이의 간증을 들은 때부터 눈물이 터져 나온 일본인 참석자. 이날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은혜를 갈망했고,

바람의 도시 군마에 분 따스한 성령의 바람 귀한 손길 러브소나타 봉사자, 기쁨의 섬김

“모든 위험을 뛰어넘고 이곳에 와주신 한국 봉사자들에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일본이 하나 되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러브소나타가 끝났다. 군마에서 열린 이틀 동안의 교회부흥세미나, 가스펠 나이트, CEO포럼과 문화전도집회가 은혜 속에 막을 내렸다. 한국인 봉사자 수 60여 명, 부족했던 봉사의 손길에 힘을 더한 30명의 은누리복지재단 직원들, 28명의 CGNTV 운영위원회, 40명의 장로합창단 등 한일 정부의 관계 악화, 방사능의 공포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마무리됐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은혜를 갈망했고 복음이 간절했던 곳, 그곳이 군마였다.

일본이 변할 것을 믿습니다

11월 12일, 오전 6시 CGNTV와 러브소나타 스태프, 양재 은누리 교역자, 참

가자, 봉사자들이 인천공항에 모여 빠르게 짐을 부쳤다. CGNTV 방송장비, 무대장식 등의 짐이 많아 러브소나타 측이 사전에 공지한 대로 봉사자 팀은 기내로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짐만 들고 일본으로 떠났다.

나리타공항에 도착해 3시간 30여 분 동안 버스를 타고 이동하자 한적하면 서도 평화로운 도시가 몸을 드러냈다. 그곳은 일본 열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대자연의 혜택을 받은 도시이자 아카기야마 산기슭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이 부는 바람의 도시 군마였다. 군마에 도착한 스태프들이 처음 방문한 곳은 마에바시 그리스도교회. 군마 러브소나타의 실행위원장 아라카와 마사오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교회다.

“러브소나타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 군마 땅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땅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군마는 일본의 배꼽과도 같은 곳입니다. 군마가 중심이기 때문에 군마가 변하면 일본이 변할 것을 믿습니다.”

아라카와 목사가 진심이 담긴 감사의 말을 전할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예배 이후 진행된 패키징 작업에서도 따뜻함은 계속됐다. 긴 이동으로 고단한 몸이었지만 다음 날부터 있을 뜨거운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는 후끈 달아오른 마음이었다.

바꿀 수 없는 섬기는 기쁨

13일(수) 오전 8시, 오전 10시부터 있을 교회부흥세미나를 위해 아침부터 봉사자와 스태프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스태프들이 묵은 그레이스인 마에바시 호텔에서 행사장까지는 도보로 15분 정도 거리. 교회부흥세미나를 준비하는 스태프들과 참가자 A팀이 한자리에 모여 서둘러 봉사를 시작했다.

군마 러브소나타를 섬기는 손길은 참가자 A팀과 B팀, CGNTV 운영위원회, 장로합창단, 은누리복지재단팀이다. 지난 12일, 일본에 도착해서 교회

부흥세미나를 섬길 참가자 A팀은 39명, A팀을 이끄는 안종복 팀장을 만났다.

“저는 사실 이번 러브소나타가 두 번째 러브소나타입니다. 오사카 러브소나타에는 참여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팀장으로 섬기게 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하게 됐습니다.”

안종복 집사는 일본어 예배를 섬기다 봉사자로 함께하게 됐다. 그는 일본 사람들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계 일본을 향한 마음을 품게 하신 과정이 있었습니다. 23년 전 저는 일본 동경에 유학을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와서 특별히 일본어를 사용할 일이 없었지요.”

그러다가 2년 전부터 일본어예배를 섬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일본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일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주셨다.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감지했다.

“그렇게 올해나 내년에 한번 가야겠다고 생각했던 러브소나타를 이번에 참여하게 됐고, 팀장으로 섬기게 되어 기쁩니다.”

그가 소속한 A팀은 첫날 일본에 도착해 이세사키시 오테마치에 위치한 이세사키 그리스도교회를 방문했다. 예배를 드리고 중보기도를 하고, 헌금을 전달했다.

“예배를 드리고 나와 교회를 다시 보니 주차장 수보다 교회가 작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차장이 교회의 10배나 되었습니 다. 일본에는 주차장이 없으면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이 교회가 좀 더 부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다음 날 13일, 문화전도집회를 앞두고 안종복 집사를 만났다. 그는 여전히 밝은 모습으로 섬기는 기쁨에 대해 말했다.

“한번 러브소나타를 섬기게 되면 다음에도 꼭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즐거움을 한번 느낀다면 그 어느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반드시 끝까지 이어져야 하는 노래



13일 저녁 7시 30분 베이스아문화를 소홀에서 열린 가스펠 나이트는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어느 때보다 가족적이고 따뜻했던 시간이었다. 가스펠 나이트의 안내 봉사를 섬길 참가자 B팀은 25명, 그중에는 최고령 82세의 봉사자 김정은 권사(노원공동체)도 있었다.

오키나와, 후쿠오카, 샌다이, 아사하카 외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로 섬기는 러브소나타라는 김정은 권사는 일본어도 능숙했다.

“저는 언제나 일본을 위해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평소 일본어로 쓰여진 성경을 읽고 있고 또한 최근에는 일본어로 일대일을 했지요. 그래서 러브소나타가 열린다고 했을 때 ‘무조건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러브소나타를 위한 선물 패키징 작업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다’며 무언가 쓰임받을 때 얻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많아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러브소나타에 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게 러브소나타 봉사는 기쁨 그 자체입

니다.”

참가할 수 있을 때까지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싶다는 김정은 권사. 그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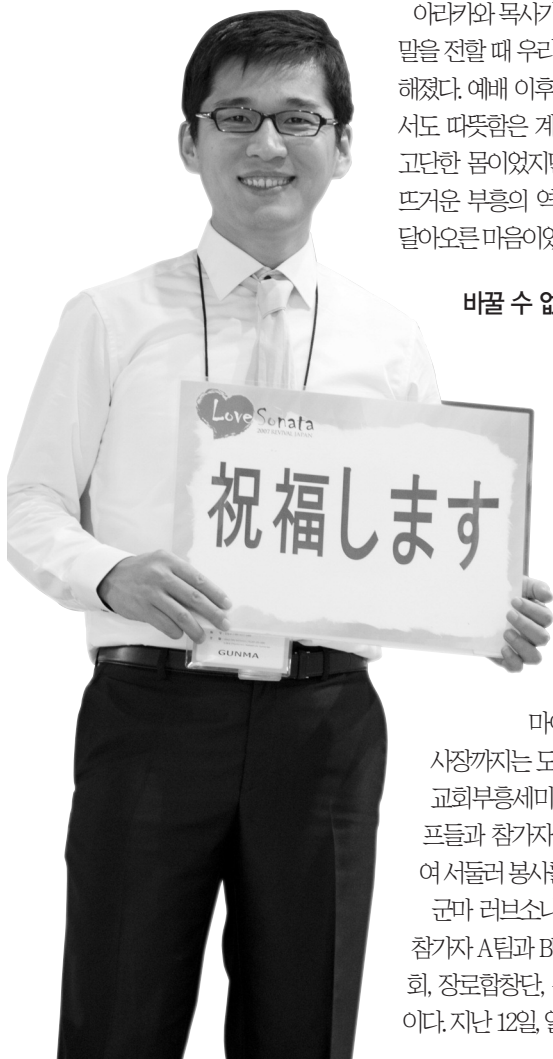
“러브소나타는 절대 끝이 나서는 안 되는 사역입니다. 러브소나타는 반드시 끝까지 이어져야 하는 노래(러브소나타)입니다.”

고령의 나이,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밝은 모습으로 섬기는 김정은 권사의 뒷모습에 젊은 청년과도 같은 열정이 뽐여져 나왔다.

내 몸으로 하나님 나타낼 수 있다면

은누리복지재단 상임이사 정호욱 목사는 봉사와 헌신을 몸으로 나타내는 것이 자신들이 할 일이라며 러브소나타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복지재단이 하는 일은 어렵고 힘든 곳에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복지재단 각 시설에서 우수사원을 추천하여 일본의 복지시설을 방문했고, 군마 러브소나타의 봉사자로도 섬기게



복음이 간절했던 땅을 밟다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변동코이노니아에서 두 명의 장애인도 참여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해 목발을 짚은 몸으로 함께한 이범남 형제는 “예수님 마음을 전하려 왔다”고 수줍게 말했다. 그는 몸은 아프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긴다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본에 오게 되었다고 했다.

“몸이 불편해도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저의 몸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더 열심히 섬기고 싶습니다.”

올해 처음 CGNTV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군마 러브소나타를 참석하게 된 이호영 집사는 CGNTV 안테나 달기, CEO 포럼 참석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함과 동시에 온누리신문 통역 봉사자로도 섬겼다.

이호영 집사와 28명의 CGNTV 운영위원회 성도들은 이번 일정을 3박 4일 동안의 이웃리치로 보냈다. 오지마 그리스도교회와 뉴라이프처치, 시부가와 그리스도교회를 방문해 CGNTV 안테

나를 달고 니지마학교를 세운 니지마 선생의 생가와 니지마학교, 일본 CGNTV를 방문했다.

이호영 집사는 “CGNTV 안테나를 달아주었을 때 감동하는 무목교회 성도들을 보며 풍성한 나눔을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또한 그는 방시능의 위협 등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봉사자 수가 줄어든 것을 안타까워했다.

“지금 일본과 한국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특히 방시능 문제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아 처음에는 저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보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일본에 와서 적극적으로 섬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험한 지역이라는 인식에 어는 때보다 봉사자가 부족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품은 봉사자들이 모인 군마. 그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군마는 일본의 가장 중앙이면서도 가장 낙후된 곳입니다. 이곳을 기점으로 러브소나타가 일본 구석구석으로

넓혀가기 바랍니다.”

세상보다 귀한 열매 맺은 군마 땅

14일(목) 저녁 7시 30분 문화전도집회 러브소나타. 마지막 피날레인 세리머니의 앞 순서인 결산카드 작성 시간에 온누리 장로들이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온누리장로합창단 40명이 결산카드를 작성하는 시간에 특송으로 찬양을 불렀다. 머리가 백발이 된 장로들이 열정을 다해 부른 찬양에 일본인들은 박수를 보냈다.

일 년 동안 연습했던 노래를 러브소나타 무대에서 선보이게 돼 기쁘다는 김석인 장로(온누리장로합창단 단장)는 처음 섬기게 된 러브소나타에서 오히려 자신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합창을 통해 받는 가장 큰 기쁨은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러브소나타 섬김은 그동안 저희가 장로로 부름 받았지만 새삼 느끼지 못했던 감동과 은혜를 느낄 수 있었



던 시간이었습니다.”

군마 러브소나타에는 56세부터 88세의 장로들이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자비량으로 참석했다. 지난 13일(수)에는 동경 온누리교회 수요일 배에서 100여 명의 성도가 모인 가운데 합창 4곡을 선보이고 돌아왔다.

“군마 러브소나타는 특별한 집회가 될 것이라 믿고 일 년 동안 준비해왔습니다. 찬양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김석인 장로의 소망이었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3박 4일의 여정이었다. 이틀 동안의 집회를 통해 30여 명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다. 적은 수이지만 그 어떤 물질과 시

간을 들여서도 얻을 수 없는 귀한 열매다.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나리타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탔다. 감사하게도 돌아가는 길에 주룩 주룩 비가 내린다. 멀리 보이는 아카기야마 산 비림이 불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문득 아라카와 마사오 목사의 말이 가슴 속에 메아리친다.

“먼 한국 땅에서 이곳 군마까지 와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필리핀 지진 긴급구호

“하나님 손길로 변화될 ‘더 멋진 세상’ 꿈꿉니다”

국제개발 NGO ‘더멋진세상’ (Better World)은 지진과 슈퍼태풍 ‘하이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리핀 중부지역 피해 현장을 방문해 그곳 주민들에게 긴급구호품을 전달했다.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더멋진세상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도울 예정이다.

지난 10월 15일, 필리핀 중부 보홀(Bahol)섬을 강타한 리히터 규모 7.2의 지진과 33회의 여진으로 215명이 사망하고 가옥 3450여 채가 파손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1월 9일, 슈퍼태풍 ‘하이옌’ (Haiyan)이 보홀섬을 포함하여, 북쪽에 위치한 레이테(Leyte)섬과 세부(Cebu)섬을 지나면서 중부 지역의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되었다.

지진과 태풍의 상처 남긴 필리핀 현장

지진 발생 직후 ‘더멋진세상’은 피해가 집중된 필리핀 보홀섬에 현지 협력파트너인 Erwin, 남미선 2명을 긴급 파견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했다. 답사 결과 47개 도시로 구성된 보홀섬에서 가장 피해가 큰 지역 중 하나인 마리보호(Maribojoc)의 산간 지역에 위치한 칸다비드(Candavid)마을이 긴급구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지난 11월 6일 ‘더멋진세상’ 본부 직원 2명, 현지 파트너 2명 및 현지 자원봉사자 6명 등이 칸다비드를 방문하여 1차 구호품 150세트를 각 가정 단위로 전달했다. 지원된 물품은 쌀 2kg과 라면, 통조림, 과자, 칫솔, 치약, 비누 등 식료품과 생필품 위주로 구성되었다. 긴급구호품을 받은 주민들은 연신 “살라맛(고맙습니다)”을 외치며 희망의 미소를 지었다. 과자 봉지를 쥐어뜯고 신이 나서 뛰어다니는 꼬마들의 웃음소리가 마을 가득 울려 퍼졌다. 김창욱 목사(더멋진세상 본부장)는 “일회성 지원으로 그

치지 않고, 이후로도 현지파트너 2명을 중심으로 지속적 방문과 구호품 전달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주민 수가 600여 명이 되는 칸다비드 마을은 이번 지진과 태풍으로 145채의 가옥 중 106채가 무너져 내리거나 비바람의 영향으로 지붕과 벽이 날아가 버리는 등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 지진 발생 직후 전기와 식수는 끊겼고, 피해 주민들은 조그만 비닐 천막을 임시로 설치하고 바다에 나무나 천을 깔아 한 방에서 온 식구가 기거하고 있었다. 게다가 우기라 열대성 폭우가 바람과 함께 살내로 들어다쳐 불편이 가중되는 형편이었다. 마을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도 있는데, 이번 지진으로 학교 건물이 무너져서 공터에 임시 천막교실을 세워 수업하고 있었다. 어지럽게 널려진 건물 잔해 사이로 아이들이 사용했을 노트와 책 그리고 교실 벽에 걸려있던 표어와 그림 등이 흙먼지에 덮인 채 뒤섞여 있었다.

‘NEW CANDAVID’를 꿈꾸며...

공터에 세워진 천막교실 옆에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눈에 들어온다. ‘NEW CANDAVID’ (새로운 칸다비드)라는 이름으로 마을의 새로운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카메라를 들



지진 및 태풍의 아픔이 남아있는 필리핀 현지 상황.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에서 피해를 당한 난민들을 위해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문의: 02-2271-2248
후원: 우리은행 1005-602-215331
(사)더멋진세상



이대면 남의 등 뒤로 숨어버리는 수줍음 많은 아이들. 해맑은 미소를 머금은 아이들이 꿈꾸는 새로운 마을의 모습이 멋지게 표현되었다. 아이들은 이미 무너진 건물 잔해위에 새로운 마을의 모습을 꿈꾸고 있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이제 눈에 무너진 주택이 들어왔다. 피해 지역을 살펴본 김창욱 목사는 “주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서 마을을 주도적으로 재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좋겠다”며 구호품 전달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 가옥의 신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인정했다. 다행인 것은 이곳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고 마을 동장(홀리오, 35세 남)을 중심으로 질서가 세워져 있어서 일을 추진하는 데 용이하다는 점이었다.

칸다비드 마을의 동장 홀리오는 “초가지붕과 대나무 격자무늬 벽을 이용해 전통 가옥을 짓는다면 재료비가 \$100 정도 필요할 것”이라며 주택 신축에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에 ‘더멋진세상’은 이들을 위해 2단계 지원계획으로 주택 신축에 필요한 지붕과 외벽 재료

를 지원하고, 주택 건설은 현지 파트너와 홀리오 동장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면 좋겠다는 계획안이 마련되었다.

주민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주택건설의 의지가 있는 10가정을 선별하여 시범적으로 임시가옥 재건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여 주민들 스스로 건축을 마무리 하고, 이를 토대로 나머지 96가구의 신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무턱대고 돈을 쥐어주거나 일방적으로 건설을 추진해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마을의 장기적으로 발전해 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개선해 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길이 열릴 것이다.

‘더 멋진 마을’에 대한 기대감

남미선 협력파트너는 “긴급구호활동을 하면서 주민들과 신뢰를 형성하고 친밀감이 형성되면 앞으로 이곳에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공부를 시작할 것”이라며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는 비전을 제시했다. 국가 종교인 가톨릭이 토착신앙과 뒤섞여 변질된 모습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리 낯설지 않다고 한다.

지진과 태풍으로 무너진 건물들의 잔해를 보면서 좌절하지 않고 새롭게 더 나은 마을을 건설하려는 꿈으로 활기가 느껴지는 칸다비드 마을. 이들에게 더 멋진 세상은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더멋진세상’과 함께 만들어 갈 ‘NEW CANDAVID’가 기대된다.

/ 고대선 팀장(더멋진세상)

새가족사역팀 이야기 1

“온누리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새가족 사역팀에서 하는 일은?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등록에 필요한 양육과정을 밟고 있는 분들을 새가족(New Family)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새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 안내와 등록과정을 운영하는 사역입니다. 교회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며 혼자서는 신앙생활에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양육받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누리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양육과 선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 하영호 목사님께서도 늘 강조하신 것이 온누리교회에 오는 사람은 누구나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할 것이며, 배우기 싫은 사람은 가르치고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은 겸손히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양육과정의 첫 번째 단계가 교회 등록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올바른 교회관과 신앙의 조력자를 만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새가족 사역팀에서는 등록과정을 통하여 신앙의 기초에 대해 교육하고 공동체 연결을 통하여 신앙의 조력자를 만나게 해주는 브리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신앙을 가지고 온누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에게는 교회안내와 교회 양육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으로서 성장하는 삶을 연결해주는 브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에 등록하려면 모두 8주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중 4주간은 교회에서 집체 교육을 하며, 나머지 4주는 공동체에서 연결하여 주는 일대일 양육자와 일대일 과정으로 4주를 하게 됩니다. 새가족사역팀은 이 과정 중에서 전반 4주간의 집체교육을 담당하며 8주간의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등록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는 만남의 잔치를 지원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사역의 역사는?

초창기의 새가족 사역은 6주 과정으로 시작하여 온누리교회의 비전과 목회철학, 예수그리스도, 성령론, 공동체, 큐티, 일대일 등을 중심으로 온누리의 핵심 가치를 새가족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이후 커리큘럼은 7주 과정으로 개편되어 헌신과 선교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었으며 현재에는 일대일 연결과정으로 진행되는 8주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마음회복예배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난 10월 중순, 한마음예배공동체에서 환우 40여 명, 스텝 및 환우 가족 60여 명이 '하나님 아빠'와 함께 태국 파타야를 다녀왔다. 은혜로웠던 그 여정을 4명의 간증을 통해 들어 본다.

‘하나님 아빠’와 함께한 회복여행!

더운 날씨에 방콕의 왕궁을 방문하였고, 세 대의 버스를 나누어 탄 우리는 열대림 같은 이국적인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목적지인 파타야로 향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식물원이라는 “농녹빌리지”에서 동물들의 공연을 보기도 했고 코끼리 등을 타고 짧은 거리지만 트레킹도 경험했습니다. 파타야 앞바다에서는 헬멧을 쓰고 열대어들과 함께 해저를 걸어 다니기도 하고, 연녹색 파스텔 색 파도에 몸을 맡기기도 하였습니다. 환우들이 함께 이동하고, 해저를 걸어다니는 용기를 내어 보면서 움츠러든 자이를 극복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잊지 못할 그 바다를 뒤로하고, 우리는 준비해 왔던 선물 꾸러미와 함께 60여명의 아이들이 머무르고 있는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아이들이었지만, 눈빛과 미소로 아이들을 축복하고, 얼굴에 스티커를 붙여주고 공차기를 하며 함께 뛰어 놀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100여개의 팔찌를 비즈공예로 만들어온 자체가 있었는데, 아이들의 고맙다는 인사에서 더 없는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는 듯 했습니다. 질환의 문제로만 갇혀 있었던 환우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스텝과 환우 보호자들에게 놀라운 일

이었습니다. 아마도 환우 본인들에게는 더욱 감격스러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였다. 질병으로 고통 받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찬양하였습니다. 지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상 숭배의 태국 땅을 중보하며 나아갔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내 문제에서 벗어나, 중보자의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3박 5일이라는 태국아웃리치 기간 동안 한마음예배공동체는 “하나님 아빠”의 손을 잡고, 그 분이 만드신 자연을 함께 보고, 그 분이 사랑하시는 고아들을 함께 돌보고, 그 분이 사랑하시는 그 땅의 백성들을 중보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빠”는 이 작은 여행을 통해 우리의 문제로만 갇혀 있는 환우와 가족들에게 봄이 오듯 마음을 열게 하였고, 한계에 도전하게 하였고, 자연 속에서 웃게 하셨습니다. 한 마음예배공동체와 은혜로운 “아빠 어디가?”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조혁래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셨습니다”

아웃리치 기간 내내 순장님들이 각자 자기 조원들을 진정 사랑하고 아껴주는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 이렇게 좋은 예배와 모임을 예비해 놓으셨고, 또한 친절하고 마음이 따뜻한 순장님을 붙여 주셔서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셋째 날 호텔 세미나실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스럽고 은혜가 베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우상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라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 이 나라에 복음이 역사하실 계기를 만들어드릴 수도 있다고 하시니 나도 모르게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오후에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한창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먹고 살아야 할 아이들이 그렇지 못해 안타깝고 연민을 느꼈습니다.

넷째 날 산호섬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탔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과 비취색 바다, 아름다운 자연이 한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여 명의 우리 일행을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게 하시고 즐기게 하시고 만져보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마지막 날이라 고단하고 지쳐있어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고 함께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을 회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내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 이 감동을 가족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에 감사합니다.

/ 고춘광



“세상은 하나님이 있기에 살 만한 곳입니다”

저는 딸이라는 이유로 엄마에게 홀대받으며 자랐습니다. 버림받은 자의 이름으로 저의 마음은 늘 외로움과 불안에 차 있었습니다. 교회공동체 안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황설수설하는 말, 일관성이 없는 말, 이유없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다들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서 사람들 가운데서 지낸다는 것이 불안하고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날 좋아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나를 버린 자식으로 여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큰 아이 요나단이 사춘기를 겪으며 나와 큰 갈등을 빚어 나의 정신은 한층 더 황폐해졌습니다. 아이 일로 인하여 받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여 병원에 기본증 뇌전증이라고 하며 신경을 너무 써서 뇌에 이상이 생겼으니 약을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동시에 저혈당 증세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때 식사를 못하면 낮아진 혈당으로 인하여 거의 의식을 잃었고,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죽었다 살아나는 상태가 반복되었습니다. 혹시 제때 식사를 못할까 두려워 외출도 하지 못하고 공기 탁한 집에만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태국 아웃리치 여행은 내게 목숨을 건 여행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화장실 가다가 넘어졌는데 다리를 다쳤지만 바로 다음날 한인 교민대상으로 하는 한방의원

에 가서 바로 침을 맞게 하심으로 통증을 없이 하고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내가 교회에 근무하는 것이 당신 하나 잘 돌보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같아”하고 말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하여 나는 과거의 비판적인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껏 살아왔던 힘든 세월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날 버리신 것이 아니라 늘 지켜보시며 곁에서 사람들을 통해 돌봐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하는 질문에 섣뜻 대답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예, 하나님은 진정 선하신 분이십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이곳 한마음 공동체에서는 모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면서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들로 가득 차 있어 “아,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므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와주신 공동체 식구들과 공진수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리더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 이순미



“그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느끼며 기도한 시간”

2일차 우리가 간 곳은 태국을 여행하는 분들은 반드시 방문한다는 궁전이었습니다. 그 궁전에는 금으로 도배한 것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지만 인구의 95%가 불교인 나라의 영향으로 모든 장식은 불교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 땅과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차에 오를 때마다 버스에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저의 기도순서가 되었을 때, 저는 태국 땅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태국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임재하실 미래의 태국을 그리며 마음속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태국에서 맞는 주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결심을 하게하는 큰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교회의 예배당이 아니라 숙소로 사용하는 호텔의 세미나실을 이용하였지만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위해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목소리 높여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한 거룩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산호섬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누렸고 오후에는 태국의 고아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고아원은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시설이었지만 그 곳에 있는 많은 어린 영혼들이 정말 예뻐했습니다.

특히 어린 아기를 계속 안고 있는 어린 자매가 보여서 물어봤더니 18살인데 안고 있는 아기의 엄마라고 했습니다. 같이 했던 집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아기와 엄마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전하였습니다.

이번 전도여행기간동안 직접 태국 인을 만나서 하나님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그 땅을 밟고 기도할 수 있었고 또 불교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태국 인을 직접 만남으로 인해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 이경원



2013년도 크리스마스 선교사자녀 선물 보내기

1 선물 준비

· 방법

- 1) 각 공동체의 선교사역자가 주관하여 준비합니다.
- 2) 주소확인 : 선교사의 주소를 확인 합니다.
(국내에 계신 선교사 포함)
보안지역에 계시는 선교사에게는 한국에 있는 선교 단체로 소포비와 함께 선물을 보냅니다.
(아래 선교단체 주소록 참고.)
- 3) 편지쓰기 : 편지는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도록 하며, 순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적습니다.
필히 각 공동체의 선교사역자 및 다락방장의 주소, 전화, 이메일을 기록하여 선교사와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4) 선물준비 : 선물은 우편요금과 배달과정을 고려하여 실용적이며, 부피가 가볍고 깨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적당한 가격 수준에서 우체국에 기준하는 소포 포장으로 해야 합니다.
- 5)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선교지에서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해외 송금보다는 현지 선교사님 가정 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성으로 준비하여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지 도착 날짜 일을 고려하여 11월 중으로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선물

- 1) 선교지의 기후를 고려합니다.
- 2) 자녀의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준에 맞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 ①자녀는 고3 및 12학년(1995년생 이후 출생자)까지 기재가 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각 공동체 선교사역자님들께 '선교사 자녀 선물보내기 주소와 명단'을 메일로 발송)
- ②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선물 (자녀수와 연령 확인 필요) : 학용품 (크레파스, 연필, 공책, 스티커, 물감, 싸인펜 등), 부피가 크지 않고 깨지지 않는 장난감, 옷, 장갑, 모자, 큐티책, 게임 S/W, 책 (동화, 위인전, 교양만화, 학습지 등).
* 보안지역 제외 품목 : 음반, 서적, 비디오, 악세사리 등
- 3) 참고 인터넷 쇼핑몰 : <http://mall.duranno.com> (두란노몰)

2 보안지역 유의사항

· 보안지역이란?

- 공산권, 모슬렘, 선교 및 선교사 활동을 금하거나 비자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선교사의 신분 보장하기 위함.
- * 보안지역으로 보낼 경우 기독교 관련 선물과 편지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표기사항도 아래와 같이 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가능한 선교사가 소속된 해당 선교단체와 사전 협의를 당부드립니다.
- 예) 선교사 → 선생님, 목사님 → 사장님, 교회 → 회사, 공동체 → 부서 등.
- 기독교 용어 (하나님, 기도, 예배 등등)는 가급적 피할 것.
- 보안지역 안내
- 공산권 - 중국
모슬렘권 - 중동 및 중앙아시아 전지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북아프리카, 동유럽 일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힌두교권 - 인도, 네팔 등 (비자 제한 지역)
불교권 -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 각 공동체는 기록된 선교지 주소로 소포 포장을 하여 선물을 발송합니다.

다만, 수신주소가 선교 단체로 되어있는 경우에 소포 포장을 하여 소포비와 함께 선교 단체로 발송합니다.(예수전도단은 예수전도단에 현지 주소 문의 후, 발송은 직접 공동체에서 발송합니다.)

3 문의

- 1) 각 공동체 및 캠퍼스 선교사역자
- 2) 2000선교 : 김민규 간사 02-3215-3208
2000mandu@gmail.com

4 우편요금

·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 <http://www.koreapost.go.kr>

· 우체국 대표 전화 : 1588-1300

* 자세한 사항(규격, 요금, 중량 등의 접수조건/통관/우편물 중 추적(행방조사) 등)은 ☎1588-1300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선교사 자녀 현황	사역지	소속단체	선교사 자녀 현황	사역지	소속단체	선교사 자녀 현황	사역지	소속단체	선교사 자녀 현황	사역지	소속단체
■ 서빙고 캠퍼스			노아/김희오 P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노여호수아/정마리아 A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서대문공동체		
● 감춘공동체			김서진, 남, 20050616 김하진, 남, 20061001 김채진, 남, 20090418			노하린, 여, 20011123, 노하민, 남, 20031212, 노하연, 여, 20110420			고진우/혜현 J시 두란노해외선교회		
주송결/주누가 U국 예수전도단			● 한강공동체			● 양천공동체			이진우, 남, 20010217		
김해인, 여, 20070805 김다인, 여, 20091024			문열림/(전세계) S국 중동 선교회			윤정오/(정홍오) A시 코너스톤			김복음/김치유 D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창오/장문오 R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전지현, 여, 20040816 전소연, 여, 20061112			윤신우, 여, 20000313 정길원, 남, 20020515			김요한, 남, 20000115 김아삭, 남, 20050528		
김다니엘, 남, 20090331 김사무엘, 남, 20120901			● S브릿지 공동체			이도오/오은오 일본 두란노해외선교회			● 여의도공동체		
임창오/손은오 일본 WEC 선교회			존/그레이스 F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이애, 남, 20011226 이 불, 여, 20050101			이사람/김평화 T국 예수전도단		
임은혜, 여, 20100313 임시은, 여, 20130212			나라, 여, 19980618 하늘, 여, 20010618			이빛, 남, 20070620			이석은, 남, 19971123		
● 서빙고공동체			● 찬양사역 공동체			강현오/김경오 중동 WEC선교회			김스데반/조희 한국 Inter-CP		
김갈렐/차한나 P국 두란노 해외 선교회			보아스/나오미 H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강진휘, 남, 20060528 강예스터, 여, 20080101			김하진, 여, 19980815 김하림, 여, 20021212		
김신, 남, 20001107 김의, 남, 20020418			● 관악권천공동체			● 이수공동체			김하경, 여, 20041023		
김인, 여, 20031101			최바울/김한나 B시 두란노해외선교회			소리엘/소리샘 D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이생명/이샘물 한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최선/이름 N시 두란노해외선교회			최예향, 여, 19960301 최예경, 여, 19980322			박지현, 남, 20040816 박지수, 여, 20060418			● 일산공동체		
최산, 남, 20040305 최솔, 여, 20051026			최예광, 남, 20000328			둘겔지우/김줄리 소아시아 DN			김바나바/김드보라 T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최강, 남, 20080405			박사무엘/이현오 B국 GP 선교회			김지나, 여, 20011106 김하나, 여, 20030405			김요한, 남, 20000805		
● 용산공동체			박준홍, 남, 19960802 박주영, 남, 20010511			김사무엘, 남, 20051006			이예녹/aysata Lee 세네갈 GMP		
권능/오성령 M국 GO			김반석/성샘물 T국 WEC 선교회			● 강서공동체			이예람, 여, 19960602 이예람, 여, 19980807		
권인애, 남, 19950530 권경영, 남, 19970410			김윤서, 남, 20010227 김서진, 남, 20050502			양라천/김나록 I시 FMnC선교회			다니엘/예레미 A시 두란노해외선교회		
김루이스/강한나 G국 BEE KOREA			방경오/김귀오 H국 두란노 해외 선교회			● 김포 공동체			문예스터, 여, 20020812 문예스라, 여, 20061113		
김예지, 여, 20070206 김예성, 남, 20100303			방하민, 남, 20060825 방은송, 여, 20080616			김경오/이지오 M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제프/로즈 O시 IMB		
김스데반/린 A시 두란노해외선교회			● 동작공동체			김보라, 여, 20070605 김소라, 여, 20100303			저스틴 왈리고라, 남, 1996 카사이 왈리고라, 여, 1998		
김하일, 남, 19981219 김하성, 남, 20040207			아굴라/브리스가 O시 두란노해외선교회			김길, 남, 20120226			에릭 왈리고라, 남, 2003		
서권능/김정오 베트남 두란노해외선교회			● 영등포구로공동체			토마스/세라 N시 두란노해외선교회			● 동대문중앙공동체		
서준하, 남, 20020316 서승하, 남, 20040417			이영생/박은혜 한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예진, 여, 20000229 김예하, 남, 20030612			최권능/윤예지 T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서은하, 여, 20070224			이경배, 남, 19970120			● 마포 공동체			최영환, 남, 19960821 최요환, 남, 19990720		
하길/유진리 모잠비크 두란노 해외 선교회			● 이촌공동체			정재오/정봉오 동남아 GP선교회			최세라, 여, 20040319		
하요한, 남, 20020729 하예은, 여, 20040419			류다윗/송안나 U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정세람, 남, 20060728 정세희, 여, 20080430			고엘리사/허예스터 M국 Inter-CP		
● 이촌공동체			류시연, 여, 20051102 류가연, 여, 20080302			정영광, 남, 20101125			고성주, 남, 19950921		
최요셉/(최한나) K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구리빙스턴/김마리아 P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서오/양혜오 한국 인터콥선교회			탁광복/준기쁨 S국 HOPE선교회		
최사프란, 여, 20081104 최사론, 여, 20081104			구유진, 여, 20051113 구본훈, 남, 20070411			서유진, 남, 19980922 서유민, 남, 20031210			탁애경, 여, 19981015 탁은찬, 남, 20000223		
한디아넷/최필 U시 두란노 해외 선교회			김○○/최○○ O시 GBT			Rachel/(어원 카바오) 필리핀 두란노해외선교회			● 북누리공동체		
한지우, 여, 20110721			김서훈, 남, 20121008			조수아, 남, 20030912 니코, 남, 19981222			정은유/최열매 N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제975호 | 2013년 11월 17일(주일)

선교사 자녀 현황	사역지	소속단체	선교사 자녀 현황	사역지	소속단체	선교사 자녀 현황	사역지	소속단체	선교사 자녀 현황	사역지	소속단체
정하준, 남, 19960716 정하윤, 여, 19980311 김마가/송두리 김환희, 여, 19950624	한국	GO	박민음/(함은혜) 박소연, 여, 19961108	V시	HOPE 선교회	한사람/새살 이수훈, 남, 19940121 이혜인, 여, 20040308	N시	두란노해외선교회			
노원공동체			서초B공동체			부천 캠퍼스			강동 캠퍼스		
이훈/오지영 이아현, 여, 20030314 이찬, 남, 20071017	필리핀	GMP	임모세/유루스 임하라, 여, 20120527	H국	두란노 해외 선교회	이철오/원은오 이선용, 남, 19950922	M국	두란 노 해외 선교회	정래베카/사시 다니엘, 남, 20000312 유진, 여, 20080717	스리랑카	두란노해외선교회
조경오/브린오 조폴린, 남 20050423	네팔	두란노해외선교회	심다윗/김미소 심하민, 남, 20050110	D시	FMnC 선교회	반석 사라, 여, 20040601 사랑, 여, 20120516	E국	두란노해외선교회	한사랑/김소망 한성은, 여, 19990803	L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성동광진공동체			김현오/우종오 김하람, 남, 20030705 김하준, 남, 20060101	P국	두란노 해외 선교회	양아브라함/천사라 양경주, 여, 19960502 양한성, 남, 20020417	M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송바울/장에스터 송주은, 여, 20031116	A시	두란노해외선교회
김일오/명유오 김규, 남, 20040407	네팔	예수전도단	다윗/한나 양선, 여, 20040902	I국	두란노 해외 선교회	요한/조은오 오아삭, 남, 20000129	T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정직환/정은선 정한음, 여, 20110213	한국	두란노 해외 선교회
한권오/홍관오 한정민, 여, 20010807 한영호, 남, 20040424	I시	두란노 해외 선교회	서초C공동체			김한/배지오 김진우, 남, 19990506 김진아, 여, 20090719	D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선교단체 주소록		
성북공동체			이오/김승오 이한나, 여, 20050701	R국	두란노 해외 선교회	박승오/김효오 박시원, 남 20110915	B국	두란노해외선교회	TIM (두란노해외선교회) (02-794-1063)	(449-82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 면 추계로 62
김자이날/띠아황 김주영, 여, 19980623 김주찬, 남 20031223	S국	예수전도단	차요셉/성리헬 차건우, 남, 20000419	한국	두란노 해외 선교회	박신오/최연오 박시현, 남, 20100713	D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경배와 찬양 (02-796-9700)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80 경배와찬양
최밀알/이평강 최예미, 여, 20000616 최예건, 남, 20040220	Y국	두란노해외선교회	바사르 살람, 남, 20090627	I국	두란노해외선교회				바울 선교회 (063-254-8418)	(561-80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 1동 1556-6 마래빌딩 2층
전생명/구원해 전영광, 여, 19951004	E국	FMnC	바나바/김조세핀 강산길, 남, 19981104	한국	두란노해외선교회				빌리온 선교회 (02-879-1191)	(151-853)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원동 86-10번지 2F
중흥로공동체			박사랑/김은혜 박지혜, 여, 19990420	말레이시아	BEE KOREA				알타이 선교회 (02-576-8503, 070-7114-0266)	(133-6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우체국 사서함 48호
Cho오오 Reuben Om Ngai, 남, 20020910	A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유애복/서에스터 유사랑, 여, 20080718	E국	두란노 해외 선교회				중동 선교회 (02-3436-3307)	(138-16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2동 156-3 한일빌딩 4층 402호
바나바/헵시바 이희창, 남, 20040320	A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송파공동체			김바울/김연오 김현식, 남, 19971031	D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창조과학회 (02-419-6465)	(135-230)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639-6 강남빌딩 5층
김별/백학화 김유비, 여, 20060421	C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신원오/오수오 신영은, 여, 19991118 신하연, 남, 20061116	스리랑카	두란노해외선교회	한길/임사랑 황혜연, 여, 19991020	Q시	두란노해외선교회	BEE KOREA (02-822-9480, 내선 102번)	(157-849)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495-18번지
양재 캠퍼스			정제오/홍정오 정예현, 남, 19960529	한국	GBT	조은샘 서정파, 남, 19980501	D시	두란노해외선교회	Come Mission (한국컴선교회) (02-859-2414 070-8250-3985)	(153-800)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29- 21 2층
강남A공동체			분당A공동체			최기오/강정오 최예찬, 남, 20050317	I국	두란노해외선교회	Cornerstone(모퉁이돌) (02-796-8846, +902323648028)	(135-66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208번지 1층
조중오/임미오 조사라, 여, 19970323	파푸아뉴기니	GBT 선교단체	김현오/홍성오 김도연, 여, 19951204 김유진, 여, 20011128	T국	WEC 선교회	노훗 나다니엘, 남, 2001	F국	두란노 해외 선교회	Destination (+902323648028)	kdestination@hanmail.com	
백두/한라 이하준, 남, 20001016 이하은, 여, 20060301	E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제짜온/김세라 제가은, 여, 20091227	S국	두란노해외선교회				FMnC 선교회 (02-848-6251, 070-7500-6241)	(137-824)	서울 서초구 방배동 537 오선빌딩 2층
서요셉/황로즈 서희원, 여, 20060902	Y국	두란노해외선교회	박겸손/장에스터 박세아, 여, 20040609	I국	두란노 해외 선교회				GBT 선교회 (02-598-5324)	(156-824)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2길 33
이찬오/송이오 이윤아, 여, 20011208	R국	InterServe	분당B공동체			John/Esther 강은혜, 여, 20030219	C시	경배와 찬양	GMF 선교회 (02-2653-4270~1)	(158-80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231-163
강남B공동체			김순종/천사랑 김미래, 여, 20040707	T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최아삭/박유니스 최시은, 남, 2012.12.05	D국	두란노해외선교회	GMP 개척 선교회 (02-337-7191)	(120-863)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48-15
손충성/송이레 손수아, 여, 19981208	T국	두란노해외선교회	토마스/미셸 윤서연, 여, 19950607	D시	두란노해외선교회				GMTC 선교회 (02-2649-3197, 070-4066-0114)	(158-80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231-188
강남C공동체			김연오/최애오 김진영, 여, 19960427	한국	GBT				GO 선교회 (02-400-9182, 010-2437-2555)	(314-080)	충청남도 공주시 금학동 273-1 세종빌딩 A동 2층
이꽃 김요한, 남, 20020907	L시	두란노해외선교회	산본안산공동체			최원오/김연오 최혜승, 여, 20011017 최희승, 남, 20050418	OM선교회		GP 선교회 (02-443-0883)	(138-2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8길 17 2층
풋대/김향한 표하웅, 남, 19970216 표현, 남, 20030806	J국	Inter-CP	박찬오/박은오 박진, 남, 20040425	C시	예수전도단(YMCA)	김은영 요셉, 남, 20040910	일본	두란노해외선교회	HOPE 선교회 (070-8787-8844, 070-8787-8807)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654-14 미래아파트 지하층	
아이작/사만다 박시아, 여, 20060926	P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제이콥/윤유희 박송, 여, 19980102	B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홍오/정일오 김지수, 여, 19960417	F국	가성(OMC)	Inter-Coop (070-4352-6510)	(140-897)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5-357 202호 자원팀 MK팀
아굴라/브리스가 윤은서, 여, 20081219	D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안양평촌공동체						InterServe 선교회 (070-4352-6510)	(463-94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공작동 210 코오롱트리플라스 A동 1206호
아굴라/브리스길라 선주연, 여, 20010326 선하진, 남, 20050610	C시	두란노해외선교회	민바울/최윤숙 민주희, 여, 19950801 민형선, 남, 20010829	D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최원오/김연오 최혜승, 여, 20011017 최희승, 남, 20050418	OM선교회		ITM 선교회 (02-2695-1451)	(158-074)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4동 981-12호 2층
서초A공동체			김성오/임정오 김상진, 남, 20000208	P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가나 Gan-Otgon Bayar, 남, 20010412 Gan-Otgon Bayar, 남, 20030122	M국	두란노해외선교회	KIBI (02-792-7075~6)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4-108 대륜빌딩 103호
이빛/(울다잔) 잔유빈, 남, 20111009	T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이하오/박정오 이성주, 여, 20070226	D국	두란노해외선교회	박서오/전미오 박종인, 남, 20060627	불가리아	WEC 선교회	OM 선교회 (02-6925-3333)	(121-842)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64- 60 화산회관 3층
위진오/(홍성오) 홍신의, 남, 20040307	H국	예수제자선교회	류모세/강사라 류찬영, 남, 19960905	S국	두란노해외선교회	방샘물/김은유 방하연, 남, 20050907	E국	FMnC 선교회	OMF 선교회 (02-455-0261)	(137-82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본동 763-32 호안빌딩 2층
아브라함 서평안, 남, 20020606 스테판/에스터 카논, 여, 20020906	L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시오/고영O 김하은, 여, 19990921	D국	두란노해외선교회				UPMA 선교회 (050-5315-1993)	(153-80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36- 132 한국세계선교협의회4층
주누가/최희선 주주영, 남, 19971209	한국	GO	양재공동체			이빛/이샘 이스라엘, 남, 20060702	S국	두란노해외선교회	WEC 선교회 (02-529-4552)	(137-13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65-7 송진빌딩 4층
			오갈렐/김혜리 오하임, 남, 20080911 오길, 남, 20121017	S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다윗/최사라 김에스터, 여, 20060220	E국	두란노해외선교회	YWAM (예수전도단) (02-322-0563)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 241-34번지 5층	